

# 지하경제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 정답

1	③	2	③	3	④	4	②	5	⑤
6	①	7	⑤	8	④	9	①	10	③
11	④	12	④	13	②	14	③	15	⑤
16	①	17	③	18	②	19	⑤	20	②

## 해설

### 1. [출제의도] 국민 경제의 순환 이해하기

노동이 ㉔에 포함된다는 것은 (나)가 가계, 즉 (가)가 기업이라는 것이고, A는 생산 요소 시장, B는 생산물 시장이 된다. ㉔은 (가)에서 정부로 가는 화폐이므로 '법인세'는 ㉔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 2. [출제의도] 금융 상품의 특성 이해하기

X정기 적금, 펀드, 주식 중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정기 적금, 직접 투자 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주식,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것은 주식과 펀드이다. 이 중 2개의 금융 상품이 해당되는 특징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 뿐이므로 이는 ㉔이 된다. 또한, 두 개의 특성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주식뿐이므로, B가 주식이 되고, 자동으로 A는 펀드, C는 정기 적금이 되어 특징들도 배열이 가능하다(㉑이 직접, ㉒이 예금자 보호). 주식으로는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고, 펀드는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간접 금융 상품이다. 정기 적금은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 3. [출제의도] 경기 순환을 이해하기

㉑이 확장기, ㉒이 후퇴기, ㉓이 수축기이며, 후퇴기와 수축기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 1. ㉑ 시기에는 경기가 호황이므로 고용률이 증가할 것이고, 2,3. ㉒, ㉓ 시기는 경기가 침체되는 시기이므로 재고량이 증가(덜 산다), 그리고 정부는 금리를 낮추어 경기 부양을 시도할 것이다. 4. 경기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과정'으로 인식한다면 경기 진정을 목표로 하는 '재할인을 인상'정책을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5. 경기 과열 단계에서 정부는 국.공채를 매각하여 시중 화폐를 흡수하려고 할 수 있다.

### 4. [출제의도] 명목 및 실질 GDP와 물가 이해하기

1. 기준 연도가 언제인지도 모른다. 2. 2016년 대비 2017년 물가는 하락했다(명목 GDP동일, 실질 GDP증가). X재 가격이 올랐을 경우 Y재 가격이 유지되거나 상승할 경우 물가가 하락했다는 결과는 나올 수 없다. 3. 2014년 대비 2015년 물가는 하락했다('14: 실질=명목, '15: 실질>명목). 따라서 둘 다 하락했을 수도 있다. 4. 경제 성장률은 양수, 음수, 양수. 물가 상승률은 음수, 양수, 음수. 5. 2016년 명목 GDP와 물가는 모두 상승했다.

### 5. [출제의도] 연관재와 정상재, 열등재 이해하기

Y재 가격의 감소는 X재 수요의 감소 요인이 되므로 Y재는 X재의 대체재이다. Z재 원료 가격 하락은 Z재의 공급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Z재 거래량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Z재 가격 하락은 X재 수요의 증가 요인이므로 Z재는 X재의 보완재이다. 국민 소득의 상승이 X재 수요에 긍정적인(증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X재는 열등재가 아니다.

### 6. [출제의도] 환율의 결정 원리 이해하기

B점은 A점 바로 위에 있으며 외환 시장은 공급 법칙을 따르므로 수직 또는 수평선이 아니다. 즉 균형점 A가 B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가 같이 변해야 한다. 따라서 1번이 정답. 2. 순수출 증가는 환

율의 감소 요인이라서 애초에 말이 안된다. 3. 환율이 올랐으니 수출은 증가한다. 4.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졌으므로 부담은 감소한다. 5. B가 균형점인데 A의 가격으로 고정할 경우, 수요 곡선은 A의 오른쪽을 지나고 공급 곡선은 A의 왼쪽을 지난다. 그러므로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 7. [출제의도] 생산 비용과 판매 수입, 이윤 판단하기

생산량(개)	1	2	3	4	5	6
총 비용(\$)	210	300	405	520	650	810
판매 수입	150	300	450	600	750	900
이윤	-60	0	45	80	100	90

ㄱ. A 기업은 X재를 5개 생산할 때 이윤이 최대 100달러이다. ㄴ. 생산량을 1개 추가로 늘릴 때 드는 비용은 210(0-1), 90(1-2), 105(2-3), 115(3-4), 130(4-5), 160(5-6)으로 1개에서 2개로 늘릴 때 이후로는 계속 증가한다. ㄷ. 본래 A 기업은 X재를 이윤이 극대화되는 양인 5개만큼 생산했을 것이다. 4번째 X재부터 세금 30달러씩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총 비용은 210-300-405-550-710-900으로 바뀐다. 이 경우 최대 이윤은 X재를 4개 생산할 때의 +50달러로 바뀐다. 그러므로 A 기업은 X재를 4개 생산할 것이므로 1개만큼 감소한다.

### 8. [출제의도] 수요와 공급 이해하기

1.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일직선일 경우, 가격이 일정하게 상승할 경우 일정한 폭으로 수요량/공급량이 증가 또는 감소할 것이다. 간격은 일정하지 않다. 2. 시장 균형점은 5000원 480개이므로 판매액은 이를 곱한 240만 원이다. 3. 생산자에게 만년필 한 자루당 1500원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공급량 값이 1500원만큼 '평행 이동'할 것이다. 이럴 경우 공급자는 현재 4500원에서의 공급 수준만큼 6000원에서 공급량이 결정되는데, 이럴 경우 수요량과 공급량이 모두 350개가 되어 시장 균형점이 된다. 4. 최고 가격 4000원 설정시 수요는 700개, 공급량은 250개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5. 균형점보다 높은 가격에서 공급 곡선이 변화하므로, 균형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9. [출제의도] 경제체제별 특성 이해하기

가)는 계획 경제 체제가 상대적으로 높고, 나), 다)는 시장 경제 체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이다. 형평성 추구 정도, 정부 개입 정도는 계획 경제 체제가 더 높고, 이윤 추구 동기, 경제 활동 자유도는 시장 경제 체제가 더 높다.

### 10. [출제의도] 가계의 수입과 지출 이해하기

ㄱ, ㄴ. 소득의 합은 450만원이며, 갑의 월급은 근로 소득, 을의 소득은 사업 소득, 주식 배당금은 재산 소득으로 이 셋은 경상 소득이다. 돌잔치 축하금은 비경상 소득이다. 지출의 합은 300만 원이며, 식비와 교통.통신비가 소비지출, 담보대출 이자와 소득세가 비소비 지출이다. ㄱ은 맞고 ㄴ은 틀렸다. ㄷ. 비경상 소득은 50만원, 전체 소득은 450만 원.

### 11. [출제의도] 환율 변동이 미치는 영향 파악하기

(계산이 더러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일부러 더럽게 줍니다. 어차피 계산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2017년에 비해 2018년 원/달러 환율, 원/100엔 환율 모두 상승하였으므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가장 떨어졌다. 또한 2017년 1달러보다 썼던 100엔이 2018년에는 1달러보다 비싸므로, 엔화 가치가 가장 많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1. 엔화 가치가 상승했으므로 엔/달러 환율은 감소하였고, 가격 경쟁력은 떨어졌다. 2. 엔화>달러화>원화이다. 3. 연 수익률 5%인 일본 상품의 경우, 일본 엔

화 기준으로 5%가 올랐을 것이다. 달러화와 원화 모두, 2017년보다 2018년에 엔화 대비 가치가 떨어졌으므로 5%보다 더 큰 수익을 거두었을 것이다. 즉 두 국가의 기업 모두 이익이다. 4. (2017년 1달러짜리 투자 상품을 구입하였을 경우 이는 약 113엔이다. 2018년 5%의 수익률로 1.05달러가 되었을 텐데 1.05달러는 약 96엔이다.) (시험기에서는 이정도로 자세히 계산을 하지 마세요.) 2017년 100엔은 1달러에 비해 약 10%(10% 이상) 가치가 낮다. 2018년 100엔은 달러에 비해 5% 이상 가치가 높다. 2017년 달러에 비해 썼던 100엔이 2018년 5% 이상 비싸졌으므로, 엔화 가치는 달러화 가치 대비하여 5%보다 더 많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손해. 5.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으므로 대비 수출 증가의 요인이다.

### 12. [출제의도] 무역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 파악하기

ㄱ. 국제 가격 기준으로 T년에 수요량은 9만 개, 공급량은 11만 개다. 즉 초과 공급이 되었을 2만 개를 수출하게 된다. 2만 달러 \* 7달러는 14만 달러이다. ㄴ. 소비자는 X재를 계속 7달러에 소비했다. 거래량도, 수요 곡선도 변하지 않았고, X재 가격도 그대로였으니 소비자 잉여에 해당하는 영역의 넓이도 동일하다. ㄷ. 공급 및 수요 곡선이 직선이므로 관세 부과 후 가격은 7.5 달러가 되며, 이는 S(t+1) 그래프에서 7만 5천 개, D 그래프에서 8만 5천 개가 된다. 수입량이 1만 개이며 관세는 개당 0.5 달러이므로 총 5천 달러가 된다.

### 13. [출제의도] 가격 탄력성 이해하기

(낚시에 많이 걸렸을 듯 합니다. 선지 배분은 친절한 편(정답 2)이었을 뻔했으나 낚시 선지(1번)가 더 빨리 나온 케이스입니다.)

1. '쌀값이 5% 오를 때 수요량이 1% 줄어든다'는 것은 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은(대화에 따르면 0.2) 비탄력적 상태라는 것이다. 아이스크림 가격이 5% 감소했는데 판매 수입이 똑같다면 수요는 단위 탄력적이다. 하지만 실제로 똑같은 건 순이익이고, 이럴 경우 아이스크림의 '판매량'은 증가했고, 순이익은 동일하니 아이스크림의 도매 단가를 고려하면 판매 수입은 오히려 증가했을 것이라고 추론 가능하다. 2. 대체재 종류가 많아지면 가격 탄력성은 증가한다. 현재 비탄력적이므로, 단위 탄력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3. 쌀 가격만 오르면 판매 수입도 늘지만, 아이스크림의 경우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 4. 쌀의 수요 곡선이 더 가파르다. 5. 아이스크림 공급량만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이는 판매 수입을 감소시킨다. 쌀의 공급량만 증가해도 가격은 하락하고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 14. [출제의도] 국제 수지 이해하기

1. 오차 및 누락이 없을 경우 경상 수지와 자본.금융 계정의 합은 0이다. 경상 수지의 부호가 바뀌었으므로, 이쪽 부호도 바뀌었을 것이다. 2. 상품 수지는 악화되었다. 상품 수출 증가보다 수입 증가가 더 컸다는 뜻이다. 3. 경상 수지는 2016년 +30억 달러, 2017년 -5억 달러이다. 경상 수지가 음의 값을 가지며 악화되었으므로 이는 갑국 화폐 가치의 하락을 불러온다. 4. 여행을 기록하는 항목은 서비스 수지이다. +20억에서 +40억으로, 순수입이 20억 달러 늘기는 했지만 '유입량'이 20억 달러 늘었는지는 알 수 없다. 5. 교포 송금을 기록하는 항목은 이전 소득 수지이다. -30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개선되었다.

### 15. [출제의도] 외부 효과 이해하기

ㄱ.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큰 사례이므로, 생산 측면에서의 불경제 효과이다. ㄴ. 좌우 대칭이면서 두 곡선 모두 직선이다. 즉 기울기가 같은 대칭 모양이다. 이럴 경우 좌우 대칭은 곧 상하 대

청이 된다. P2와 Q2의 교점에서 P1과 Q1의 만나는 점까지 P1P2만큼의 차이가 나고, Sb 그래프의 경우 비용 차이가 이만큼 더 나야 생산량이 Q2가 된다. 그림을 그리는 게 빠를 것 같다; c. 방사성 물질이 추가로 발견되어 위험성이 늘었을 경우, 사회적 비용은 더더욱 증가한다. 이는 사회적 비용 곡선인 Sa를 더 위로 올릴 것이며, 외부 효과의 크기가 커졌다고 할 수 있다.

**16. [출제의도] 조세 제도 파악하기**

ㄱ. B는 A보다도 더 누진세의 특성이 강해졌으므로, 역진성이 강하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ㄴ. 세제 A,B는 모두 '구간별로 계산 후 산출'하는 형태이다. 소득이 0~1천만원인 구간에서는 A보다 B가 세율이 낮으므로 납부 세액이 줄 것이며, 1천만원~4천만원 구간에서는 A,B의 세액 증가 속도(즉 적용 세율, 한계 세율 등)가 동일하다. 그러므로 소득이 0원을 초과(어차피 문제에서 소득 없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하고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세액은 무조건 감소한다. ㄷ. 소득이 1억인 사람은 A에서는 (20%\*4000만) + (30%\*6000만) = 800만 + 1800만 = 2600만 원의 세액을 부담하고, B에서는 (10%\*1000만) + (20%\*3000만) + (25%\*5000만) + (40%\*1000만) = 100만 + 600만 + 1250만 + 400만 = 2350만 원의 세액을 부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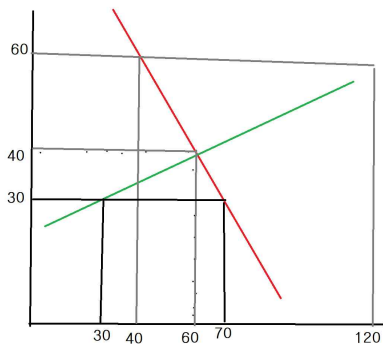
**17. [출제의도] 정부의 시장 개입 이해하기, 조건을 통해 시장의 현황 파악하기 \***

(이 문제는 조건 해석이 까다로웠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상태가 주어졌고 상황도 많았어요.) X제는 현재 정부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래프를 통해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모두 없는 가격은 40달러임을 알 수 있다. 즉 X제는 현재 4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직선이며, 이 때문에 초과 수요 및 초과 공급을 나타낸 곡선도 직선이다. 50달러에서는 초과 공급량이 A(만 개), 30달러에서는 초과 수요량이 A(만 개)이다. 즉 10달러만큼 가격이 변하면 초과 공급/수요가 A(만 개)만큼 변화하는 것이다. 가격이 60달러일 때 초과 공급은 2A(만 개)이다.

시장 개입 조건에서, 60달러에서 최저 가격을 설정하면 해당 가격에서 수요량만큼 거래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60달러에서의 수요량은 공급량 - 2A만 개인데, 공급량이 수요량의 3배이므로 수요량이 A만 개, 공급량이 3A만 개다. 60\*A = 40\*(균형 거래량)이므로 40달러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은 모두 3/2A(만 개)이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대칭이 아닌 것이다.

붉은 색이 수요 곡선, 초록 색이 공급 곡선이다. (색맹이신 분들도 뭐가 내려가는 지를 통해 파악 가능하다.)



한편, 최고 가격이 30달러일 경우에는 공급량이 거래량이 된다. 60달러에서 공급량이 3A만, 40달러에서 3/2A만, 즉 1.5A만 개이므로, 30달러에서는 3/4A만, 즉 0.75A 만개가 된다 (직선이니까!). 30달러\*3/4A만 = 90/4 A 만 달러이다. 시장 균형에서의 판매 수입은 40달러 \* 3/2A만 = 60A 만 달러이다. 이 차이는 150/4 A만 달러이다. 150/4 A=1500이므로 A는 40이다. 그러

므로 위 그래프와 같이 숫자를 추론하여 작성할 수 있다.

ㄱ. A의 값은 40이다. 60은 균형 거래량을 만 단위로 표현한 것이다. ㄴ. 직선을 그렸다면 30달러에서의 공급량이 30만 개, 수요량이 70만 개임을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50달러에서 시중에 나온 모든 물량을 사들인다. 50달러에서 시중에 나온 물량은 90만 개다. 이 물량을 재고도 없고, 초과 수요도 없는 가격에 팔려면, 수요량이 90만 개가 되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 가격이 10달러일 때 수요량이 90만 개이므로, 판매가는 10달러이다. 즉 정부는 50달러에 X제 90만 개를 매수하여 10달러에 소비자에게 파는 것이다. ㄷ은 맞는 보기가.

ㄷ. ㉠ 정책을 실시하기 전 잉여부터 계산하자. 어차피 모든 곡선은 다 직선이므로 잉여는 삼각형의 넓이로 계산이 가능하다. 먼저 공급 곡선은 20달러에서 0에 도달하니 20달러를 한 '교점'으로 잡고 계산하자. 수요 곡선은 100달러에서 '교점'이 생긴다. 40달러에서 60만 개가 거래되던 때에는, 생산자 잉여에 해당하는 넓이는 20달러\*60만개\*1/2인 600만 달러이다. 소비자 잉여는 60달러\*60만개\*1/2인 1800만 달러이다. 즉 둘의 합(사회적 잉여)은 2400만 달러이다. 정책을 실시한 후에 생산자는 50달러에서 90만 개를 팔았다. 생산자 잉여에 해당하는 넓이는 30달러(50-20)\*90만개\*1/2인 1350만 달러이며, 소비자 잉여는 90달러(100-10)\*90만개\*1/2인 4050만 달러이다. 즉 둘의 합은 5400만 달러로, 정책 시행 전에 비해 3000만 달러 증가했으므로 틀렸다.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 만났는데 안 풀리면 넘기세요. 그리고 만들 때 일부러 좀 과하게 준 면도 있는 문제입니다.)

**18. [출제의도] 편익과 기회비용, 합리적 선택 파악하기 (17번 넘겼다면 이게 나왔겠네요. 대부분의 경우 4페이지에서 그나마 가장 쉬웠을 문제.)**

현재 ㉠의 일부는 매물 비용이 되어 있다. 이 매물 비용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뮤지컬의 편익은 +12만 원이다. 뮤지컬의 기회비용은 뮤지컬을 선택해서 포기한 ㉡의 값인 5만원(명시적), 그리고 콘서트에서 얻을 수 있었던 편익 ㉢이다. 즉 +12 > ㉢ + ㉣일 경우 '뮤지컬'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1. ㉠만 변동할 경우 ㉢ ㉣이 그대로라는 것인데, 계산 과정에서 ㉢의 값이 중요하지, ㉠의 값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콘서트 선택시 포기해야 할 기회비용은 변하지 않는다. 2. ㉢은 5만 원이므로, ㉣이 7만 원 미만이면 뮤지컬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3. ㉢은 콘서트의 편익이다. 콘서트의 편익이 바뀌면, 당연히 어느 쪽의 순편익이 클 지도 바뀔 수 있다. 4. ㉠에서 ㉢을 제외한 값은 이미 회수 불가능하므로 맞다. 5. ㉣이 8만 원이면, 위 1번 선지 설명 위의 조건에 따라 뮤지컬의 기회비용이 13만 원이 된다.(편익은 12만원. 콘서트는 그 반대로 13만원과 12만원) 즉 콘서트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19. [출제의도] 취업, 실업, 경제 활동 인구 이해 및 파악하기**

(논리가 복잡하지는 않으나 계산과 파악이 약간 필요한, 약간 사문력한 문제.)

조건에 따라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모두 % 수치이다.)

연도	(85)	(95)	(05)	(15)
노동가능	160	200	250	300
경제활동		150(75)	200(80)	250(83)
취업자		132(88)	170(85)	215(86)
실업자		18(12)	30(15)	35(14)
비경제활동		50	50	50

(가장 먼저 2005년의 노동 가능 인구가 250만이라는 것을 찾아 넣어야 한다. 그 이후로 경제 활동 인구를 이용해 실업률을 계산하고, 1995년/2015년 쪽

으로 넘어가서 실업률과 경제 활동 인구를 구하여 빈 칸을 채워 나가는 방식이다.)

1. ㉠은 1995년 실업자 수이므로 18(만 명)이다.
2. 경제활동 참가율은 2번 모두 증가. 실업률은 증가 후 감소.
3. 1985년의 실업률은 1995년과 동일하다 (95년 변화율 0). 만약 실업자 수도 동일하다면 경제 활동 인구가 동일하다는 뜻이다. 노동 가능 인구가 160만인데 경제 활동 인구가 1995년과 동일한 150만이면, 1985년의 비경제 활동 인구는 10만 명. 1995년 50만 명이 되었으니 2배가 아닌 5배로 증가이다.
4. 2015년 실업률은 14%로 2005년 15%에 비해 1%p 낮아졌다. ㉡에는 -1이 들어간다.
5. 표를 보면 안다. 경제 활동 참가율은 취업률보다 항상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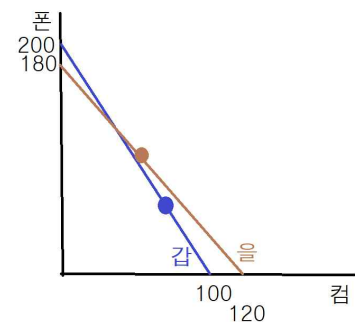
**20. [출제의도] 비교 우위와 무역 이해 및 파악하기 \***

(이 문제는 지난 4월경 자작 문제로 올린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아이디어가 아깝기도 해서 그냥 최소한의 변형만 한 채로 넣었는데, 아는 문제를 보아서 실망하셨던 분들께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다들 처음 냈을 때도 생각보다 잘 접근하시던... 그런 문제입니다. 시간이 꽤나 걸렸을 뿐.)

먼저 어느 쪽이 어느 재화에 대하여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지를 조건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1. 갑국이 컴퓨터, 을국이 휴대폰일 경우  
갑국은 생산에서는 컴퓨터 1개 = 휴대폰 0.5개이다. 현재 갑국은 휴대폰 40개, 컴퓨터 80개를 생산 중이므로 컴퓨터에 몰빵한다면 휴대폰 40개를 포기하여 컴퓨터 80개를 추가 생산하여 컴퓨터 160개를 만들 수 있다. 휴대폰에 몰빵한다면 컴퓨터 160개 대신 휴대폰 80개를 만들 수 있다. 을국의 경우 생산에서 휴대폰 1개 = 컴퓨터 1.5개이다. 현재 을국은 휴대폰 90개, 컴퓨터 60개를 생산 중이므로 휴대폰에 몰빵한다면 컴퓨터 60개를 포기하여 휴대폰 40개를 추가 생산, 총 휴대폰 130개를 생산할 수 있다. 컴퓨터에 몰빵한다면 휴대폰 130개를 포기하여 컴퓨터 195개를 생산할 수 있다. 생산 요소의 양이 같은데 을국이 휴대폰과 컴퓨터 모두 더 많이 생산 가능하므로 조건에 어긋난다.

2. 갑국이 휴대폰, 을국이 컴퓨터인 경우  
갑국은 생산에서는 휴대폰 1개 = 컴퓨터 0.5개이다. 현재 갑국은 휴대폰 40개, 컴퓨터 80개를 생산 중이므로 컴퓨터에 몰빵한다면 휴대폰 40개를 포기하여 컴퓨터 20개를 추가 생산하여 컴퓨터 100개를 만들 수 있다. 휴대폰에 몰빵한다면 컴퓨터 100개 대신 휴대폰 200개를 만들 수 있다. 을국의 경우 생산에서 컴퓨터 1개 = 휴대폰 1.5개이다. 현재 을국은 휴대폰 90개, 컴퓨터 60개를 생산 중이므로 휴대폰에 몰빵한다면 컴퓨터 60개를 포기하여 휴대폰 90개를 추가 생산, 총 휴대폰 180개를 생산할 수 있다. 컴퓨터에 몰빵한다면 휴대폰 180개를 포기하여 컴퓨터 120개를 생산할 수 있다. 생산 요소의 양이 같은데 최대 생산량이 컴퓨터의 경우 을국, 휴대폰의 경우 갑국이 더 많으므로, 조건을 만족한다.



ㄱ. 을국은 컴퓨터에 대하여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으니 틀렸다. ㄴ. 갑국은 '휴대폰'을 생산한다. 휴대폰 1대당 컴퓨터 1/2대(0.5대) 이상 받고 싶어할 것이다. 거꾸로 말하자면 컴퓨터 1대당 휴대폰 2대 미만이면 이익이고, 2대이면 본전이다. 그러므로 컴퓨터 1대당 휴대폰 1.7대라면 교역에 응할 것이다 (참고로, 이 경우 을국 입장에서도 이익이므로 교역은 이루어진다.) ㄷ. 현재는 갑국은 컴 100, 폰 200 / 을국은 컴 120, 폰 180 이다. 생산량을 주어진 대로 부풀리면 갑국 컴 120, 폰 200 / 을국 컴 120, 폰 216이다. 이 경우 갑국이 컴퓨터에 대하여 비교 우위를 가지고, 을국이 휴대폰에 대하여 비교 우위를 가진다는 형태의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이 발표 자료가 예측하는 무역의 방향과, 실제 무역의 방향은 다르다. ㄹ. 을국이 컴퓨터 생산 기술이 발달해서 30개만큼 늘었다면 을국의 생산가능 곡선은 컴 150, 폰 180이다. 이 경우, 생산 기회비용은 컴퓨터 1개당 휴대폰 1.2개로 계산되므로, 양국 모두 교역에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위는 중전의 컴퓨터 1대당 휴대폰 1.5대 초과 2대 미만에서 1.2대 초과 2대 미만으로 범위는 넓어진다. 그러므로 틀렸다.

=====

(사실 일부러 계산을 좀 넣은 것도 있는데, 어쩌면 좀 과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는 실모가 갈 없고 올해 불경계가 예상되기 때문에, 난이도를 좀 덜 낮췄습니다. 좋은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개 고3 재학생이 만든 거라 퀄리티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고퀄리티로 뽑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제 응시생 여러분들 모두 힘내세요. 그래도 제발 저 수능장에서 50점 좀 따게 해주세요.....ㅠㅠ

검토: 오르비 '엠티치'님, '경제하는교대지망생'님, '경제러'님(아직 소식이 없으심)  
(감사드립니다....!)

Made by: 오르비 '봄날은 간다'